

시론

칸딘스키가 진단한 시대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바실리 칸딘스키(1866-1944)는 1911년 꽤 매력적인 논문을 발표한다. 그걸 책으로 펴낸 것이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인데, 이런 문장이 있다. "예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 즉 참된 정신적 양식이 결여된 시대는 정신세계에서 퇴보시대이다. 영혼은 높은 변에서 낮은 변으로 끊임없이 하강하며, (중략) 이런 시대의 인간들은 특수하고 두드러진 가치를 외적인 성공에 두게 된다. 그들은 단지 물질적인 부유를 얻으려 애태우며, 육체를 위한 기술적 진보만을 위대한 일로 찬양한다. 참된 정신적 능력은 과소평가되고 무시되고 있다."

113년 전에 한 말인데,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그대로 예언한 것 같다. 특히 한국 사회를 두고 한 말 같다. 모든 면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칸딘스키가 미래 사회가 어떤 길을 갈지를 꿰뚫어 보았거나, 한국 사회가 도식적인 타락과 몰락의 길을 상상력 없이 그대로 따랐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다. 나라가 부유해지면 문화적 품격이 함께 높아지고,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이 정해진 법칙처럼 진행되리

라고 믿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다. 텔레비전과 유튜브는 충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먹방과 여행, 기법고 말초적인 허위의 말장난으로 가득하다. 비주류여야 할 하위문화(subculture)가 오히려 주류가 됐고, 주류문화는 어디로 밀려났는지 찾기도 어렵다.

칸딘스키의 진단대로라면 그 원인은 예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실종이다. 1901년 3월 15일 개관한 <학전>이 2024년 3월 15일 문을 닫았다. <학전>이 존재했던 33년 동안 한국이 일군 부가 대견했는지 입만 열면 세계적인 부국이라고 자랑하는데, <학전> 하나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학전>의 가치가 늘어난 부에 따라 지킬 필요가 없는 가치가 된 것일까?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은 다른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시집은 천 권 팔리는 일이 드문 시대가 되었다. 시인들의 시집은 시인들끼리만 읽는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어렵지 않은 시들도 많다. 그런 시집들조차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돈은 도구다. 도구가 풍부해지면 일할 것이 많아지는 법인데, 문화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하위문화로의 쏠림 현상만 강해지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돈은 편협한 도구가 되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목적 자체가 되었다. 도구가 목적이 되면 과정의 가치가 사라진다.

하위문화라고 해서 무시할 이유는 없다. 취향도 다양한 층위가 존재해야 하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다양한 층위의 문화는

함께 존속해야 한다. 다만, 어느 층위의 문화는 사라지고 특정 층위의 문화만이 득세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문화는 언제나 현재를 증명한다. 의도적인 의도적이지 않든, 사회적 구성원들의 취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하위문화가 주류가 되고, 전면에서 다른 층위의 문화들을 말살해가고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돈에게는 책임이 없다. 누군가를 죽인 흥기가 살인사건의 주범이 아닌 것처럼, 돈은 주범이 아니다. 돈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

돈으로 명화를 살 수는 있지만, 명화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다. 명화는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가와 후원자들에 의해서 탄생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화를 그리는 사람을 살 수는 없다. 명화는 명화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돈에 의해서 탄생한다.

한국은 부자나라라고들 말하는데, 전혀 믿기지 않는다. 부유한 나라의 곳간에는 많은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 부자나라의 곳간은 온갖 다양한 것들이 함께 자라는 정원이어야 한다. 한국의 곳간 안에는 죽은 <학전>과 죽은 문화야, 정신이 사라진 자리가 선명하게 보인다.

한국 사회는 정신이 결여된 부박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것은 부유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난함의 증거다. 가난이 아니고서는 확보하는 S라인의 몸매와 맛집을 찾아다니는 가벼운 입들이 가득한 거리에서 겨우 사멸을 면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예술과 문학의 풍찬노숙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社說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 아전인수식 해석 말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31.28%를 기록했다.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 9천43명이 참여했다. 4년 전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역대 최고다. 전체 투표율이 7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투표율은 66.2%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해 180석으로 압승을 거뒀다.

사전투표는 5-6일 광주 96개·전남 288개를 비롯한 전국 3천566개소에서 실시됐다. 앞서 지난 1일까지 115개국 178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는 62.8%였다. 재외선거에 이어 사전투표까지 열기가 뜨겁다. 여야는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과거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계열에 다소 유리한 구도도 풀이됐다. 하지만 이제 20·30세대 청년층이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데다 소신 투표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쉽사리 따지기 힘들다. 30% 이상의 사전투표는 주권자

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해진 결과라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입법 대결이 사라져 정치 협력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의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의대 문제 등에 대해 큰 틀의 해법을 찾으려는 어젠다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로지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가시돌진 막판,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는 구태가 재연되며 '백 백전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본 투표까지 딱 이틀 남았다. 막바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이 보수'를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겠다고 한다. 민주당도 총투표율이 60%대 중반을 으면 승리할 것으로 보고 바짝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거대 양당으로 지지세가 결합돼 박빙으로 갈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유권자, 특히 중도층의 참여가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생을 살리는 진정성으로 호소해야 한다. 누가 더 엄혹한 민심을 받든느냐의 싸움이다. 어느 선거보다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정원 새단장 문화산업도시로 발돋움 중인 순천

4월의 첫날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 공개됐다. 1천1만명이 찾는 순천국가정원이 확 달라진 콘텐츠를 선보였다. 독보적인 정원문화도시로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기록됐다. 인구 30만대 되지 않는 남해안 중소도시가 일구낸 쾌거다. 6개월 기간을 거쳐 새 단장을 마친 국가정원은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을 엮었다. 다채로운 체험 요소 도입으로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세상이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원은 '케이(K)-디즈니 순천'을 엮는 최적의 장소로서 서원 3개소, 동원 5개소를 리뉴얼했다. 세계적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즈니와 같이 지역 스스로가 문화콘텐츠의 창조적인 생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도시 전체를 산업 기지화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노후화된 꿈의 다리는 '스페

이스 브릿지'로 다시 태어났다. 외관은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해 찾아온 호기심 많은 우주인의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 미로정원은 누적 조회 수 35억 뷰에 달하는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를 입혀 MZ세대를 겨냥한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로 구성했다. 대표 콘텐츠 중 하나인 시크릿가든은 4D 영상 시스템 등을 활용, 다이나믹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를 채택함으로써 '시크릿 어드벤처'로 탈바꿈했다.

순천국가정원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다. 아날로그 요소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애니메이션 요소를 결합해 새롭게 재가장했다.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사람이 더 몰리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생태수도로 발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석의 아스팔트 도로를 과감하게 걷어내 일상의 곳곳이 싱그러운 잔디밭, 녹지다. 순천이 문화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이다.

기고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향한 큰 걸음



국 승 군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이야기이지만 대부분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것 이라고만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정치에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려는 개개인의 작은 노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다.

4월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는 특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인데 벌써부터 뉴스와 SNS 등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국선에 관한 각종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지역의 정치이슈를 접하면서 선거가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낀다.

이제부터 유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고 정책 방

향에 유권자의 생각이 집약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내가 선거의 주인이고,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항상 그 권리를 행사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우리 유권자다.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선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선거 결과 또한 유권자의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권자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정한 선거문화는 유권자가 중심이 될 때 완성될 수 있다.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보일 때 선거는 정책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권자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선거는 근절될 수 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유권자들이 즐겁고 희망찬 선거 캠페인을 펼친다면 결국 선거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것이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물론 유권자에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유권자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지 모른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

하는 데 더 유효하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유권자의 생각이 표출되면 대표자들의 정당성도 높아지고 정책 결정의 방향성도 더욱 명확해진다. 내 한표의 가치와 크기는 바로 우리 유권자가 결정짓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누구도 내 생각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대의민주주의는 수많은 유권자 한분 한분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숭고하고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라 할지라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단순히 투표하는 것만이 유권자의 유일한 역할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딥페이크 영상)의 확산 및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우후죽순 퍼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유권자의 선택 과정을 어지럽히는 등 민주주의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수록 유권자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선거·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치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신의 투표하는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된 전화금융사기



최근 전화금융사기는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짜 음성용 사용에 실제 금융기관 직원처럼 들리게 하거나 검찰 수사관인 척 하면서 SNS로 수사 관련 서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정교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사기 행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 금액이 전년 대비 35.4% 증가한 1천965

억 원으로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와 2000 줄은 층의 피해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 피해자 대부분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 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보았거나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에 제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112 또는 118(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1332)은 전화금융사기 관련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속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고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난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최근 사기유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청화·순천경찰서 별파파출소>

아침물어는 詩 책 읽어주는 곡비

구애영



너의 이마 위에 생각을 읽어준다  
긴 겨울 지우지 못한 행간의 붓꽃잎  
가지를 잔기침소리  
뒤척이는 도돌이표

어깨에서 빛이 노래할 때 곁발을 따라  
곁에서 책 읽어주다 또 다른 얼굴이 되어  
호명을 기다리는가  
떨고 있는 종이 속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버릴지  
때때로 까닭 모를 이런 불날 빛소리 되어  
뻗속에 감도는 울음  
이 밤 온통 붉다

(시집 '종이는 꽃을 피우고', 고요아침, 2020)

**[시의 눈]**

가을비는 추적추적 소리의 흔적(秋跡)을 남기지만, 봄비는 춘아춘야 속삭이며 책을 읽듯 봄 지내(春夜)를 덮어줍니다. 추려한 가을비는 옷을 한결씩 벗어입하지만, 봄비는 입었던 옷을 한꺼풀 벗어버리게도 합니다. 떠난 옛사랑을 대신한 이 곡비소리는 곧 가벼워질 맨몸이듯 아침을 부르고 초하의 들만큼까지 이어져갔지요. 그래 지금 그분의 호명에 대가하는 중입니다. 그가 바람에 떨며 리얼락 향을 묻혀줍니다. 하여 '지켜보지 않으면 어디까지' 데리고 가버릴지' 모를 빛소리를 따라나섭니다. 참, 그가 내 첫사랑의 혈흔도 위무해 줄까요? 내 말뚱의 페이지를 그가 시처럼 읽어주는 밤입니다. 하지만 나의 화답이란 붉힌 눈시울로 멍 때리는 일이 고작이지요. 구애영 시인은 목포에서 201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거쳐 시집 '나의 첫사랑나무에 대한 사과'(2020), 시조집 '한밤의 내모성자'(2022)를 펴냈습니다. 그는 사물의 내면을 미세한 기미로 연역해내는 시인이기도.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규토록 월 15,000원 1부 800원